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ISO 37001)에 대한 국내 기업의 기대 및 인지도 연구*

전 병 호**

A Study on the Expectation and Awareness of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in Korea

Jun, Byoungho

〈Abstract〉

Bribery is one of the world's most destructive and challenging issues. Yet despite efforts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o tackle bribery, it remains a significant issue. Recognizing this, ISO has developed a new standard to help organizations fight bribery and promote an ethical business culture, which is "ISO 37001 -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in 2016. ISO 37001 can provide the tools and systems to greatly reduce the risk and help organizations deal with it effectively if it does arise. It is a flexible tool, which can be adapted according to the size and nature of the organization and the bribery risk it faces.

After enforcing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Korean government standardized ISO 37001, one of the Business Ethics of Global Standard, harmonizing International Standards into 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in 2017. It is meaningful in that Korean companies have localized regulation which applies to global standard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Only about 100 organizations, however, have adopted ISO 37001 so far.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xpectation and awareness of ISO 37001. Results show that still many organizations lack of awareness of ISO 37001 and it is implicated that much promotion and education will be necessary. This study has originality and value in that it can provide the guidelines for activation of ISO 37001.

Key Words : IEEE 802.11, Format Detection, Deep Learning, CNN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뇌물 및 부정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이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OECD 및 UN 등 여러 국제기구가 부패방지 협약을 체결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 등에서도 반부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6년에는 37개 국가가 정회원으로 참여

* 본 연구는 2020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 서울여자대학교 기초교육원 부교수

하고 매년 국가별 부패관련지수를 발표하는 국제투명성 기구와 OECD가 함께 참여하여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에서 반부패 관리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ISO 37001 -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을 제정하였다[1-4].

국제 사회와의 합의를 통해 마련한 반부패경영시스템인 ISO 37001은 부패방지를 위해 각국 기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것으로 규모와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획 및 설계되었다. ISO 37001은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규격으로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2, 4].

우리나라는 2016년 9월부터 공공영역을 주로 적용하는 '청탁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3]. 그리고 청탁금지법 이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2017년 ISO 37001(2016)을 KS 부합화한 'KS A ISO 37001(2016) 부패방지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는 우리 기업들도 부패방지 적용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법규범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4]. 이에 청탁금지법 및 반부패 관련 법규의 이행의무가 있는 다양한 기업 및 조직들이 ISO 37001에 관심을 가지고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국정 과제의 하나로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3]. ISO 37001 인증은 정부의 국정 과제의 실현뿐 아니라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ISO 37001 인증의 취득은 조직의 부패 리스크를 파악하고 제거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윤리경영을 통하여 조직의 클린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2]. 그러나 국내 인지기

구인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 인정을 받은 8개 인증기관이 2017년부터 ISO 37001 인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2019년까지 ISO 37001 인증을 취득한 기관 및 기업은 100여 곳에 지나지 않으며 특정 업계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ISO 37001에 대한 필요성 및 인지도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관계 기관들은 판단하고 있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부패경영시스템인 ISO 37001 인증에 대한 국내 기관 및 기업의 기대사항과 인지도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을 이미 취득한 기업과 아직 취득하지 않은 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한 기대사항 및 인지도 조사를 통해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부패방지 및 반부패경영시스템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아직 초기 단계로 이론적 고찰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 수도 매우 적다[2, 4-7]. 본 연구의 실증적 조사를 통해 ISO 37001 인증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경영시스템 인증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에 대해 규정된 안전 및 품질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conformity)을 제3자가 평가하는 활동을 인증(certification)이라고 한다[8].

인증은 그 대상에 따라 제품인증과 경영시스템인증으로 구분된다. 제품인증은 주로 사람·환경·재화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많은 국가들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과 성능 요건을 정하여 표준으로 제정·운용하고 있다. 우

리나라의 KC, 유럽의 CE, 중국의 CCC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반면 경영시스템 인증은 조직이 관련 표준 또는 기준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음을 제3자가 평가하여 적합함을 실증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활동을 통해 인증의 유효성을 유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품질경영시스템 인증(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인증(ISO 14001) 등 ISO 인증이 대표적인 경영시스템인증에 해당한다.

<표 1> 인증의 유형

유형	내용	예
제품 인증	사람·환경·재화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최소한의 안전 기준과 성능 요건	KC, CCC, UL
경영 시스템 인증	관련 표준 또는 기준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음을 제3자가 평가하여 적합함을 실증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활동을 통해 인증의 유효성을 유지 관리	ISO 9001, ISO 14011, ISO 37001

국제표준화기구인 ISO는 산업 전반과 서비스에 관한 국제표준의 제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1987년 3월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9001을 시작으로 환경(ISO 14001), 보건 및 안전(ISO 45000), 식품안전(ISO 22000), 정보보안(ISO 27001) 등 다양한 경영시스템인증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2, 9].

ISO 인증제도는 기업의 경영시스템을 ISO 표준에 따라 인증해주는 자율임의인증제도로써 각국의 인정 기구가 인증기관을 인정하고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대표적 인정기구로는 미국의 ANAB, 영국의 UKAS, 일본의 JAB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한국인정지원센터(KAB)가 인정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8].

2.2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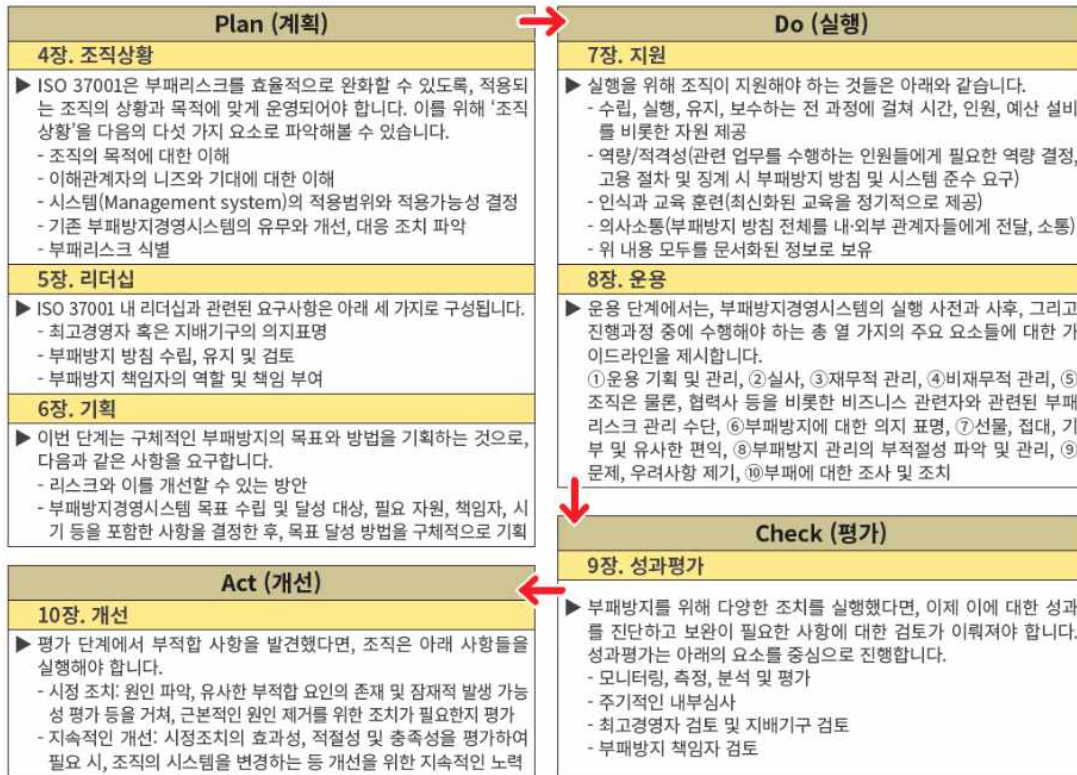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은 2016년 10월 제정

된 규격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도가 높은 규격이다. 반부패와 관련된 국제표준이 필요하다는 국제 사회의 요구와 그 효용성에 대한 기대와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ISO가 영국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던 BS 10500:2011(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ABMS)을 기반으로 ISO 37001이 제정되었다.

ISO 37001은 조직의 부패방지 문화촉진과 투명성, 신뢰성 강조 및 부패 예방을 목표로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에 이르기까지 부패예방, 감지, 해결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경영관리 시스템이다. <그림 1>에서 처럼 ISO 37001은 요구사항의 체계적인 반영을 위해 경영시스템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PDCA(Plan-Do-Check-Act) 모형을 활용하여 이행사항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을 통해 모든 조직 내 경영관리 측면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구축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10].

ISO 37001 인증의 취득은 조직에게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준다[2, 4]. 먼저 반부패경영시스템은 조직이 효과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실행함으로써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에 이르기까지 부패의 예방, 탐지,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체계를 구축하여 조직의 부패 리스크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반부패경영시스템을 통해 기업은 우선 부패 리스크를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다. 조직 내 각 단위 업무별로 부패 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하여 잠재적인 부패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내부관리 기준 및 적용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부패 시도 및 위협을 차단하고 임직원의 부패 발생 시 체계적인 조직의 부패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부패경영시스템은 또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활용되어질 수 있다. 청렴문화 확산 및 윤리경영을 통하여 조직의 클린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운영을 통한 윤리경영 실현이 가능하다.

전 세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글로벌 그룹은 청



<그림 1> PDCA 항목별 ISO 37001의 주요내용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렴한 기업 이미지 관리를 위해 ISO 37001을 인식하고 인증 취득을 준비중에 있다. 싱가포르와 페루 정부는 반부패 관리를 위해 ISO 37001을 도입하였으며[11], 미국의 Wal-Mart 및 Microsoft와 같이 다양한 공급업체들과 거래를 해야 하는 기업은 B2B 거래상의 투명성을 관리하기 위해 이미 ISO 37001 인증을 취득하였다[12].

2.3 ISO 37001 인증 국내 현황

우리나라는 부패방지를 위해 소위 김영란법이라는 청탁금지법을 시행하는 등 반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나 '18년 현재 국내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57점으로 OECD 회원국 중 30위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를 위해 현 정부는 반부패 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선진국 수준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3].

2018년부터 반부패 개혁 및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37001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6년에 제정된 ISO 37001을 2017년에 국내 표준에 부합화시키고(KS A ISO 37001), ISO 37001 인증 발급 기관 운영에 대한 인정기준을 확정하여 운영하고 있다[1, 3].

현재 전 세계 20여개 인증기관이 ISO 37001 인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그 중 한국이 8개의 인증기관으

로 전 세계에서 ISO 37001 인증 발급을 위한 가장 많은 인증기관을 보유하고 있다[1].

우리나라는 2019년 현재 8개의 인증기관에서 100여개의 기업 및 기관이 ISO 37001 인증을 취득하였다. 특히 제약업계는 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제약업체들이 인증을 취득하였다.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의약품 유통시장의 ‘리베이트’ 악순환을 윤리경영 선순환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13].

그러나 ISO 37001 인증을 취득한 기업 및 기관은 아직 100여 곳에 지나지 않으며, 그 중 상당수가 공공기관 및 제약업체에 편중되어 있다[1]. 공공 부문에 비해 민간 산업 부문의 인증 획득이 저조한데 이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ISO 37001 인증에 대한 인지도의 부족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기업 및 기관들을 대상으로 ISO 37001 인증에 대한 인지도와 그에 대한 기대를 실증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III. 연구 문제 및 방법

반부패·청렴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조직 및 국가는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가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ISO 37001 인증에 대하여 기업 및 기관들의 인지도 및 기대사항의 조사를 통해 반부패 관리를 위한 ISO 37001 인증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조직 내에서 반부패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조사 및 반부패 관련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그리고 ISO 37001 인증에 대한 인지도 및 기대사항을 조사하였다.

<표 2>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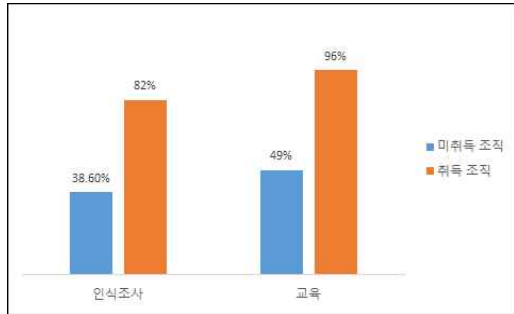
조사 내용	인증 취득 조직	인증 미취득 조직
반부패 인식조사 및 관련 교육 시행 여부	√	√
ISO 37001 인지도 및 향후 취득 여부		√
기대사항	√	√
조사 인원	118명	101명

ISO 37001 인증에 대한 인지도는 해당 인증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기업 및 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반부패에 대한 인식조사 및 교육 시행 여부와 ISO 37001 인증에 대한 기대사항은 이미 인증을 취득한 기업을 포함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ISO 37001 인증을 취득한 기업 및 기관 60개(공기업 및 공공기관 34개, 일반기업 26개)의 118명과, 아직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업 및 기관 101명(공기업 및 공공기관 30명, 일반기업 71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ISO 37001 인증 취득기업은 한국인정지원센터 및 각 인증기관 홈페이지와 기타 관련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업은 무작위 추출법을 이용하였다. 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인터넷 폼을 이용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응답자들의 해당 조직 근무 년수는 평균 9.65년으로 본 조사에 응답하기에 충분한 지식 및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IV. 분석결과 및 활성화 방안

4.1 분석결과

먼저 인증 취득 및 미취득 기업 및 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반부패에 대한 인식조사 및 관련 교육 시행 여부를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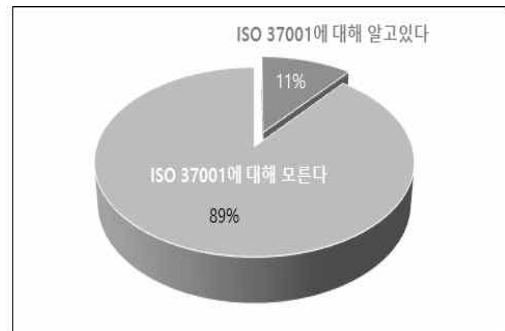
<그림 2> 반부패 관련 인식조사 및 교육 시행 여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부패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조사 여부에 대해서 인증 미취득 조직에서는 38.6%가, 인증 취득 조직에서는 82%가 인식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 관련 교육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인증 미취득 조직은 49%, 인증 취득 조직은 96%가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ISO 37001 인증을 취득한 조직에서는 반부패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조사와 관련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취득하지 않은 조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ISO 37001을 취득하여 그 지침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반부패에 대한 인식조사 및 관련 교육은 모두 시행되고 있다는 응답이 나왔어야 한다. 따라서 인식조사와 관련 교육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응답자가 소속 기업이 ISO 37001을 취득한 사실조차 모르거나, 아니면 ISO 37001 운영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정부가 반부패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는 달리 실제 기업들에서는 반부패에 대한 노력이 다소 미비하며, 이는 반부패 및 ISO 37001에 대한 기업 및 기관의 이해와 인지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인증 미취득 조직에 대해서는 ISO 37001 인증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 101명 중 ISO 37001 인증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10.9%에 불과했다.

ISO 37001 인증의 내용 및 취지 설명 후 향후 해당 인증 취득 희망 의사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도 39%만이 조직에 ISO 37001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반 비용에 대한 부담, 필요성 부재 및 효과에 대한 의문 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이는 ISO 37001 인증에 대한 이해도 및 중요성에 대한 인지 부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그림 3> ISO 37001 인지도

마지막으로 ISO 37001 인증에 대한 기대사항을 조사하였다. 기업과 조직 내 부패 척결을 위한 성공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및 국제기구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부패 방지계획의 수립, 반부패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투명성 강화, 전 사회적 반부패 문화 확산으로 요약될 수 있다[2, 4]. 이에 본 연구에서는 ISO 37001 인증 취득을 통한 기업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와 조직의 건전한 문화 형성 등에 대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응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항을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 ISO 37001 인증은 조직의 투명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 ISO 37001 인증은 조직의 사회적 신뢰성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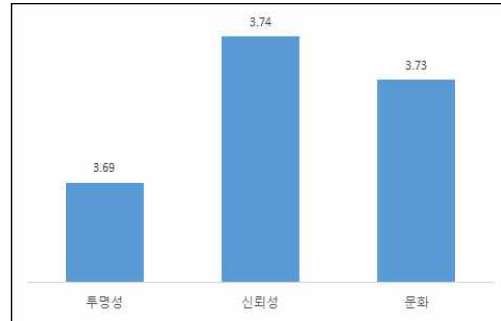
- ISO 37001 인증은 조직이 뇌물을 예방, 발견 및 해결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 문화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3개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값은 투명성 3.69, 신뢰성 3.74, 문화 조성 3.73으로 나타나 모두 보통 이상의 값으로 ISO 37001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기대사항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ISO 37001 취득으로 인해 조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높아지고 조직의 건전한 문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ISO 37001 인증을 취득한 조직과 아직 취득하지 않은 조직 사이에 기대사항에 대한 평균값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ISO 37001 인증의 기대사항을 묻는 3개 문항 모두에 대해 인증을 취득한 조직이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 < 0.000$)에서 평균값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업의 ISO 37001 인증에 대한 기대사항이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ISO 37001 인증에 대한 이해도와 인지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조직에 대해서는 ISO 37001 인증의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인증의 취득 여부가 그로 인한 기대사항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인증을 취득한 조직들은 모두 ISO 37001 인증을 취득한 후 경과 기관이 1-2년밖에 되지 않았다.

4.2 ISO 37001 활성화 방안

반부패 척결을 통한 청렴사회 구축을 주요한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ISO 37001 인증이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주요한 원인으로 ISO 37001 인



<그림 4> ISO 37001 기대사항

<표 3> ISO 37001 기대사항

기대사항		평균	표준편차	t	유의 수준
투명성	취득	4.10	0.871	6.546	0.000
	미취득	3.22	1.092		
신뢰성	취득	4.13	0.801	6.116	0.000
	미취득	3.30	1.145		
문화 조성	취득	4.12	0.822	6.199	0.000
	미취득	3.28	1.132		

증에 대한 이해도와 인지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ISO 37001 인증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강화이다. 아직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조직뿐 아니라 이미 인증을 취득한 조직 모두를 대상으로 ISO 37001 인증의 중요성 및 그 효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ISO 37001은 자발적 성격의 인증이기 때문에 홍보와 교육의 방안이 제한적일 수 있다. 정부가 부패 척결을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 및 조직들은 다양한 평가에서 윤리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청렴도 등 반부패와 유사한 항목들에 대해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들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ISO 37001 인증을 취득하면 해당 평가들을 면제 또는 우선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 부분 뿐 아

나라 민간 부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ISO 37001 인증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도 고려할 수 있다[1]. 그러나 기존 ISO 9001 인증 등의 인센티브로 인한 인증 남발의 경험을 토대로 신중해야 할 것이며[14], 국제적인 표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증 도입 후 3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인증 취득 조직 중 우수 및 실패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포상 및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는 ISO 37001 인증 취득으로 인한 실질적 장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를 높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발굴된 사례는 산업체들의 네트워크와 인증과 관련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조직들이 속한 유사 산업체들의 네트워크인 협회 등의 단체를 통해 발굴된 사례의 홍보와 교육이 제공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산업계 협회들은 조직들이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약업체들이 중심으로 된 협회를 통해 ISO 37001 인증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13]. 인증 생태계에는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한다. 인증을 취득한 조직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설정된 표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받게 되며,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자들은 인증을 받은 서비스나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신뢰하게 된다[15]. 이러한 인증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증기관의 역량을 파악하여 허가를 주고 관리하는 인정기구인 한국인정지원센터이다.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 인증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체들을 대상으로 ISO 37001 인증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플랫폼 내에 ISO 37001 인증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정보의 교환뿐 만이 아니라 자발적인 교육도 이뤄질 수 있다. ISO 인증 네트워크 플랫폼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정기구의 위상과 역량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001 인증은 국내 시장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부패와 관련한 조직의 건전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혁신적인 톨로 주목받고 있다[7]. ISO 37001 인증이 도입되면 조직은 개인 및 조직 차원에서 뇌물수수로 인한 범규위반 리스크 감소, 조직 및 사업 활동에 대한 고객으로부터의 신뢰 증대,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조직 및 기관으로부터의 파트너십 향상, 직원 및 협력회사에 부패방지에 대한 인식 공유, 뇌물 수수와 관련된 비용 예방, 공공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입찰에서 강화되는 반뇌물수수 시스템의 충족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2].

2017년 시작된 이래 현재 국내에서는 100여개의 조직이 ISO 37001 인증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민간 부문에 비해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민간 부문에 있어서도 특정 업체에 치우쳐져 있다. 이는 ISO 37001 인증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이해 및 인지도의 부족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는데[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실증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아직 도입이 되지 얼마되지 않아 ISO 37001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반부패에 큰 관심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부패 관리를 위한 효과적 톨로 인식되는 ISO 37001 인증에 대한 국내 현황을 실증적으로 접근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ISO 37001 인증의 취득이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주고 건전한 문화 조성을 장려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아직 ISO 37001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인증을 취득한 조직 내에서도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그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홍보와 교육의 강화를 통해 ISO 37001 인증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및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

고 ISO 37001 인증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은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ISO 37001은 국제적이고 그 적용이 강제적인지 않은 기준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 단체 및 협회 등의 차원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ISO 37001 인증에 대한 조직의 기대 사항 및 인지도의 관점에서 ISO 37001 인증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ISO 37001 인증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인지도의 관점뿐 아니라 취득 및 운영과 관련한 실제적인 부문에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ISO 37001 인증을 취득한 조직에 대해 ISO 37001 인증 취득 및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사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한국인정지원센터, ISO 37001 제정배경 및 도입 현황, 2019.
- [2] 박준영·양현상, “투명한 방위산업을 위한 국제적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추진 방안 연구,” 국방과 기술, 제480호, 2019, pp.110-117.
- [3] 한성욱, “반부패 규제 강화와 기업의 대응 - 글로벌 반부패 규제 강화와 ISO 37001,” Deloitte Anjin Review, No.9, 2018, pp.21-29.
- [4] 조창훈, “글로벌 윤리규범 ISO 37001의 이해와 부실 인증 리스크,” 윤리경영연구, 제18권 제2호, 2019, pp.147-168.
- [5] 천경훈, “부패방지과 사회법,” 경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2019, pp.91-119.
- [6] 신봉기, “부패방지 법제의 연구범위와 주요 쟁점,”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제1권 제1호, 2018, pp.3-42.
- [7] Valerio Brescia, “Corruption and ISO 37001: A new instrument to prevent it i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World Journal of Accounting, Finance and Engineering, Vol.1, No.1, 2017, pp.1-14.
- [8] 최지연·이상봉·정길호·강미영, “공산품 인증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 평가 및 인증제도의 개선 방향,” 표준과 표준화 연구, 제8권 제1호, 2018, pp.79-101.
- [9] 박승구·이재연·박승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관한 문헌연구,”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제7권 제1호, 2011, pp.95-110.
- [10] 국민권익위원회, ISO 37001 가이드라인 총정리, 기업윤리브리프스, 2019.
- [11] Jianwei Fang, Local Chinese regulator develops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based on ISO 37001, The FCPA Blog, 2017. <https://fcpablog.com/2017/7/31/jerry-fang-local-chinese-regulator-develops-anti-bribery-man/>.
- [12] Kristy Grant-Hart, Diana Trevley, Microsoft and Wal-Mart seek ISO 37001 Anti-bribery Certification, The FCPA Blog, 2017. <https://fcpablog.com/2017/5/11/microsoft-and-wal-mart-seek-iso-37001-anti-bribery-certifica/>
- [13] 한국제약바이오협회, ISO 37001 도입효과 분석 및 전망, 2019.
- [14] 최재웅·전병호·최재영, “텔파이 기법을 활용한 품질경영시스템 조직 진단 항목개발에 관한 연구,”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제12권 제2호, 2016, pp.87-102.
- [15] 강병구, “KS 인증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KS 인증기관 경쟁체제 도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제28권 제3호, 2014, pp.77-96.

■ 저자소개 ■



전 병 호
Jun, Byoung-ho

2008년 9월~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기초교육원 부교수
2008년 2월 고려대학교 디지털경영학과
(경영학박사)
관심분야 : 전자상거래 전략, 중소기업 정보화,
표준 및 적합성 평가, 표준경영,
SNS 활용
E-mail : bojun00@swu.ac.kr

논문접수일 : 2020년 5월 20일
수정일 : 2020년 6월 6일
게재확정일 : 2020년 6월 9일